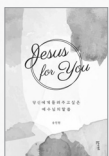


בֵּית ספר (책의 집)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송민원 씀, 아드벤토



당신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진귀한 보석을 찾아 전 세계를 다니는 어떤 상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상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롱한 보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찾아온 보석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보석을 사들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그 보석의 값어치에 비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에게 그런 보석은 무엇입니까
살아온 모든 인생을 다해 찾아다닌 한 가지가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고릅니까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제51권 24호

2025년 6월 15일(성령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첫 번째,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모임 ① 남녀선교회 월례회: 낮 예배 후, 정한 장소.
3.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혼(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성령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시원한 바람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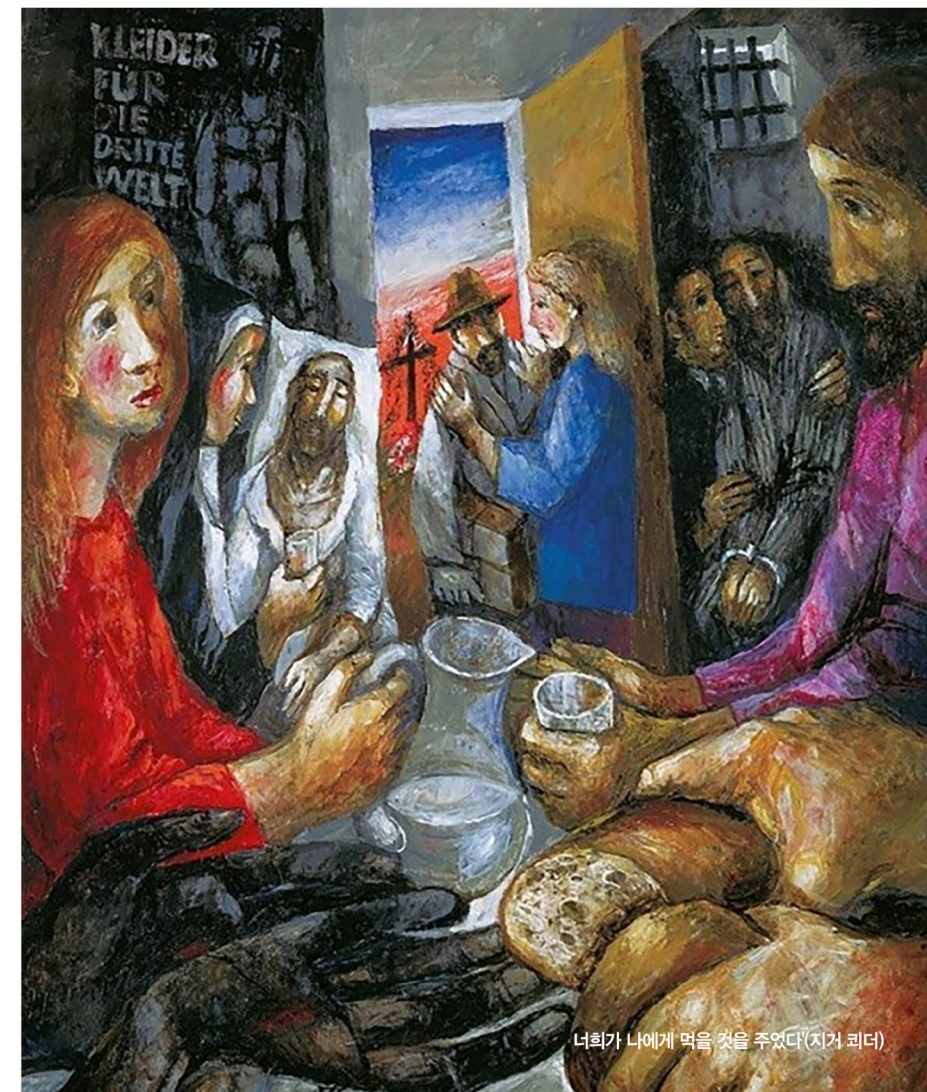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선 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 브 라 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협 061-691-7315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 산 교 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거 죄터)

주 일 예 배 (성령강림절 후 첫 번째, 삼위일체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함	께
* 예배의 부름	요한복음 4:23-24	인	도 자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11장(2절 후, 간주)	함	께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함	께
성 시 교 독	시편 8편(성서일과표를 보며)	함	께
감 사 찬 송	189장(2절 후, 간주)	함	께
기 도		양혜룡 장로	
* 성 경 봉 독	잠언 8:27-31(구약 919쪽)	인	도 자
특 송	일상	권 사 회	
말 씬 선 포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송 혁 목사	
결단의 찬송과 기도	327장(2절 후, 간주)	함	께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3절)	함	께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민경오 장로

- * 6월 안내위원 : 김보엽, 최형단, 김명숙, 유미경
- * 6월 헌금위원 : 이항재
- * 6월 주방봉사 : 4, 8구역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물레에 정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잠언 8,27-31/새번역)

섬 김 주 일

낮 예배 후
남녀선교회 월례회 정한 장소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김하은 집사	
성 경 봉 독	역대상 16:7-36(구약 635쪽)	인	도 자
말씀선포와 기도	여호와와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이다	송 혁 목사	
축 도		송 혁 목사	

다음 주 기도 - 김정혜 권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19일(목)	역대상 19.1-20.8
16일(월)	역대상 17.1-15	20일(금)	역대상 21.1-17
17일(화)	역대상 17.16-27	21일(토)	역대상 21.18-30
18일(수)	역대상 18.1-17	22일(주일)	역대상 22.1-19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씬

하늘과 땅 사이 (창세기 11.1-9)
[성서일과표/창세기 11.1-9, 시편 104.24-34, 사도행전 2.1-13, 요한복음 14.15-17, 25-27]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11장까지를 '원역사' (primitive history)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기라는 뜻이지요. 철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말로 풀어보면 '보이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역사는 '보이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배경'에 관한 고대 히브리인들의 고민과 성찰의 결과물을 문학적 혹은 신화적 글쓰기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다가서면 길을 잃게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은 원역사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바벨탑 이야기를 신학자나 성서학자가 아닌 소설가의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알'의 작가 이승은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던 중, 한 들판에서 돌 배개를 베고 잠을 청한 장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는데 꿈틀거리고 출렁이는 별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꿈틀거리고 출렁이는 별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것을, 야곱은 별들이 자기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 거대한 탑이라고 생각했다. 땅을 덮고 하늘에 닿아 있는 거대한 탑. 처음 보는 탑이지만 낯설지는 않았다. 낯설지는 않았지만 놀랐기는 했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린 시절 야곱은 잠막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웅미 있게 듣고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그 탑 이야기였다. 그때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하늘에 탑을 쌓자고 합의 했다. 그들은 하늘을 탐냈다. 하늘의 작용 아래 있어야 하는 땅의 사람인 그들은 하늘에 이르러 땅에 대한 하늘의 작용을 빼앗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아 보였다. 도시를 만들어 낸 사람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하늘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하늘은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 보였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굽고, 땅에 튼튼한 기초를 놓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 쌓아 올렸다. 사람들은 한데 모여 일했다. 노래하며 일했다. 탑은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하늘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하늘은 손에 닿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면 하늘에 닿은 것 같았지만, 탑의 꼭대기에 올라 있는 사람의 눈에 하늘은 여전히 그만큼 높은 곳에 있었다. 하늘은 닿아있었다. 그들이 올라온 만큼 올라갔다. 그들이 높아진 만큼 높아졌다. 그것이 하늘의 부동성이었다. 사람들이 움직여서 높아져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높은 채로 있었다.

사람들 사이의 동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에는 누구나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하늘의 작용을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목소리들이 많아졌다. 각자 자기 말만 했다. 말들은 뒤섞였고 서로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탑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땅 위로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표현 없이도 하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꾸짖는 소설가의 통찰과 글솜씨가 부럽기만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세상은 위험과 재난으로 가득 찬 위험하고 위협적인 곳이었습니니다. 어떤 국경적 의미도 없는 불가사의한 장소였지요. 그런데 놀랄게도 창세기 11지는 세상이 좋은 곳, 그것도 매우 선한 곳(Good)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질서와 조화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은 혼돈이 질서로 변해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가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은 경계와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경계는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이지요. 바벨탑 사건의 주체는 선악과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역사는 경계와 질서를 강조하고 하나 되게 만들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놓인 경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었지요?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는 필연적이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허물려는 시도는 혼돈과 파멸로 끝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땅에서는 반대로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강력히 웅변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갈라진 틈과 사이를 예수님의 마귀와 하나님의 뜻으로 메우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성령은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라는 뜻의 보혜사로 불리지만, 구원의 선결과 보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내다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지요. 이것이 성령강림절을 첫 예배를 통해 미래의 풍성한 결실을 내다보는 맥주감시주일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는 전도서 지혜자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실 일을 내다보며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꾸는 정원사가 되기를. 살롬.